

4·9 총선 광주·전남 누가 뛰나

③ 광주 서구·광산구

조영택 도전에 염동연 행보 변수

서갑

지난 17대 총선에서 2개 지역구로 나뉘었던 서구는 인구 하한선(31만5천명)이 무너지면서 18대 총선에서 1개 지역구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서구는 경쟁률이 14대 1을 넘어지면서 광주지역 최대 격전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2개 지역구 인구 하한선을 31만명 안팎으로 조정한다면 서구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민주당 자존심' 유종필씨도 국회 입성 노려
김종식·이정일 전직 서구청장도 예비주자

염동연 의원의 행보가 변수다. 염 의원은 지난해 JT 그룹 비리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좁아진 상태다. 염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하는 가운데 명예회복을 위해 서라도 출마를 강행한다는 입장이 다.

여기에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바 있는 조영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이 강력한 도전장을 던졌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에 도전, 인지도가 높은 조 위원장은 특유의 부지런함을 바탕으로 '호남 인물론'을 내세우며 바닥을 다지고 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도 '민주당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국회 입성

을 노리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민주당 대변인을 맡아 지명도가 높다. 시의원과 구의원 조직 등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지역 기반은 상당한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김종식, 이정일 두 전직 서구청장도 예비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 후보로는 정용화 전 연세대 연구교수가 거론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 주자로는 강기수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유력하다.

지난 대선에서 정동영 선대위 청년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송갑석씨와 이광웅 전 나주대학장 등도 거론되고 있다.

정동채 관록이나 김영진 설욕이나

서울

3선의 관록을 자랑하는 정동채 의원이 수성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입지는 예전같지 않다. 우선 불법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 사태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던 정 의원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되는 등 시련을 겪었다.

무형의 관결을 받았지만 정치적

신현구·장흥호·김성현씨 예비주자 거론돼
한나라 문상욱·민노 오병윤씨 표발 일구기

타격은 상당하다는 평가다. 또, 광주지역 최다선 의원에 맞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맞서 17대 총선에서 탄핵바

람에 고배를 마셨던 김영진 전 의원이 정 의원의와 재대결을 버리고 있다.

여기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서구청장에 도전, 나름대로

성과를 올렸던 신현구 동북아전략연구소장도 바다 민심을 다지고 있다. 장흥호 전 청와대 행정관과 김성현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장도 예비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 후보로는 문상욱, 이정현 한나라당 부대변인이 거론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 후보로는 오병윤 전 광주시당 위원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김동철 수성에 이용섭·심재민 도전

광산

인구가 31만5천명을 넘어서면서 2개 선거구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입지자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다.

우선 수성에 나서고 있는 김동철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활발한 의정 생활을 내세우며 지역 민심을 다지고 있다. 광산구가 2개 지역구로 나뉠 경우, 김 의원이 어느 지역을 택할 것인사도 관심사다.

선거구 분할 가능성...입지자 발길 대거 몰려
송병태·민형배·이상갑씨도 출마...민심 다져

이에 맞서 심재민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수개월 전부터 바닥민심을 다지고 있다.

이용섭 건교부장관도 '인물론'을 내세우며 사실상 도전장을 던졌다. 관세청장, 국제청장, 행사부장관

등을 역임한 이 장관은 다음달 5일 사표를 제출한 뒤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민형배 전 청와대 비서관과 송병태 전 광산구청장도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으며 이상갑 변호사, 김휴섭 전 노동일보 사장, 나병

식씨 등이 출마 태세를 갖추고 있다.

민주당 주자로는 김승남 전 전남대 총학생회장, 한나라당 후보로는 안재홍 광주시당 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후보로는 조삼수 전 민주노동 광주본부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과 이정남·유재신 광주시의원 등 광산구 시의원 그룹도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가보다 책 비싸게 사면 정치자금법 위반

출판회 붓물...선거법과 상관관계는?

18대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출마 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잇따르고 있다. 이른바 '출판 정치' 시즌이다. 매번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출판 기념회'의 이모저모를 알아본다.

출판기념회 왜 여나=크게 두 가지다. 많은 사람을 초대, '세 과시'를 하고 자신의 얼굴, 정책, 비전을 알리는 것은 물론 선거에 쓸 '실탄(정치자금)'도 모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책값은 대개 1만원 안팎이지만, 정가만 주고 책을 사는 경우는 드물다. 1만원 짜리 책일 경우 5만~50만원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수백만 원을 내놓는 지지자도 적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얘기다.

선거법 저촉은 어떤 경우? =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책을 구입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50배 과태료'를 무는 것은 아닐까 궁금해하는 유권자가 많

는데,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1만원짜리 책을 1만원에 사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정가보다 비싸게 사면 정치자금법(2조) 위반, 싸게 사거나 증여받으면 공직선거법 위반(113조)이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하다.

책값 이외의 후원금도 줄 수 없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은 후원회를 통해서만 모금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측 설명이다.

선관위는 그러나, 책값 이외에 찬조한 '의례적인' 축하금품에까지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1만원짜리 책인데 100만원을 내놓으면 의례적 축하금으로 볼 수 있겠느냐"면서 "의례적 행위"라는 말은 시민들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보

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화환을 보내는 것도 경우에 따라 다르다.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이 개인, 단체 명의로 출판기념회에 화환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또 다른 입후보 예정자가 화환을 보내는 것은 '선거구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볼 수도 있어 문제가 된다.

판매 부수는 중요치 않아=이 시기가 쏟아지는 정치인들의 책 가운데 상당수는 자비(自費)로 출판된다. 어느 정도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유명인의 경우 인쇄 등의 계약을 하고 출판을 하는 반면 이들은 저자 자신들이 책을 만드는 비용을 지불하고, 일정 분량을 찍어 뿌리는 식이다. 서점에 팔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 찾기도 쉽지 않다. 출판사에 따르면 평균 수준의 종이질을 가진 300쪽짜리 책 5천 권을 출판하려면 1천2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대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따르다. /김지을기자 dok2000@

임내현 前 광주고검장 총선 출마 공식 선언

정가풍향계

○임내현 前 광주고검장이 5일 북구 운암동 동화빌딩 7층에서 관계자와 지지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식 개소식과 함께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

4·9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임전 고검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중앙에서 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광주를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도시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고 출마의 변을 피력.

임전 고검장은 지난 1974년 서울법대 3학년 재학중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이후 대구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전국적으로 폭넓은 인맥을 구축했다는 평가.

김승남·서정성·오형근씨 잇따라 '출판기념회' 가져

○김승남 전 전남대 총학생회장이 지난 6일 광주디자인센터 시청각실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광주의 내일'이라는 책을 발표하는 등 4·9총선에 출마 예정인 입지자들의 출판기념회가 붐을 이루는 모습.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광주 북갑) 의원은 지난 5일 전남대 대강당에서 '강기정의 목욕탕 이야기, 법 만드는 재미'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 /위키타라기자 jrwi@



대통합민주신당 우윤근(광양·구례) 의원은 4일 광양시 광양 커뮤니티센터에서 '끝추와 무기수' 출판 기념회 및 히말라야 사진전을 개최했다. /광양=김춘호기자 kco@kwangju.co.kr

이에 앞서 5일에는 서정성 아이안과 원장이 문성고 대강당에서 열린 출판기념회를 통해 '꿈을 가진 사람 서정성의 세상읽기'를 소개. 또 4일에는 오형근 성형외과 원

장이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성형외과 전문의 오형근의 세상읽기'를 발표하고 총선 출마의사를 표명. /홍형기기자 redplane@ /김지을기자 dok2000@

Advertisement for 'Gate Way' featuring a large yellow arrow graphic and text in Korean. The text includes 'www.gateway.com', 'Gate Way', and 'Success Business Partner'. It lists various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Gate Way.